

대전 문화예술 정책의 비전과 전망

정선기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1. 서론

시민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자유시간이 증대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가치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간 대전광역시도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왔으며, 문화예술관련 시설의 확충과 문화예술인의 활동지원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왔다. 지난 10년 동안 지역의 문화예술관련 인프라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특히 2009년 이후 오랜 준비 끝에 대전문화재단이 설립되어 민간 주도의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가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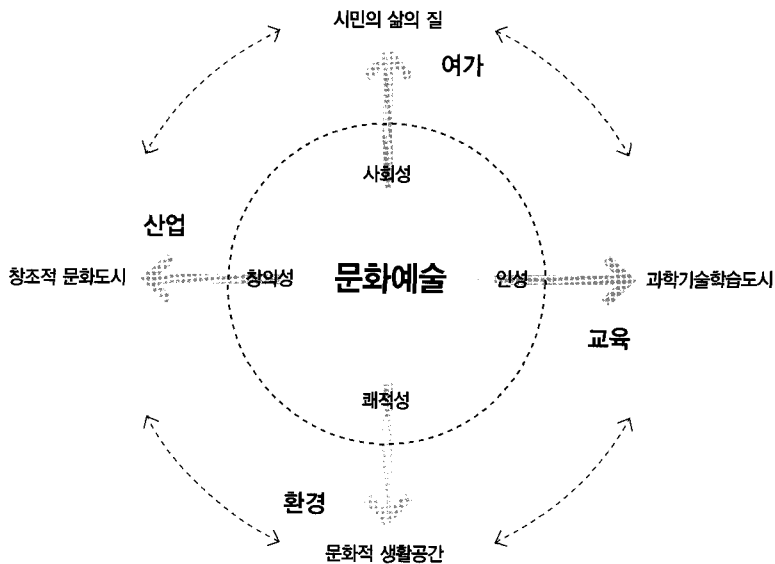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의 여러 도시들은 문화예술을 주요한 가치 창출의 자원으로 보고,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앞을 다투어 노력하고 있다. 그간 대전광역시도 문화예술 분야를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영역으로 간주하고 많은 지원노력을 해 왔으나 여전히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편에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문화예술이 어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만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문화예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첫째, 문화예술은 전문가의 전유물이나 향유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이 함께 참여·체험하고, 즐기는 대중의 영역으로 변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문화예술관련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도, 기초창작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지역의 자라나는 청소년의 예술적 감수성을 자극하고,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직접 창작·경험해 볼 수 있는 문화예술의 토양을 기름지게 가꾸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문화예술은 단기적인 처방에 의해서 급격하게 개선되거나 활성화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둘째, 지식기반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창조성은 도시 경쟁력의 핵심적인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도시의 창조성은 무엇보다 시민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문화예술과 다양한 창조적 활동이 가능한 생활환경에 의존한다. 그런 점에서 도시의 ‘문화적 계획’을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시정의 가장 중요한 정책 영역 중 하나로 간주되어야 하며, 정책의 범위를 좁은 의미의 ‘문화’나 ‘예술’에 한정하지 말고 도시를 문화적으로 조성한다는 폭넓은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2. 문화예술의 사회적 의미



[그림 1] 문화예술의 사회적 의미

지적 창의력이 중요해지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문화예술은 순수 창작이나 축제와 같은 좁은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산업, 교육, 오락, 여가, 생활공간의 구성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그림1). 첫째, 문화산업의 급속한 확장과 더불어 문화예술의 창의성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문화예술과 산업의 경계가 희석됨에 따라 문화예술은 지역의 잠재력을 결정짓는 주요 척도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문화기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전의 경우는 문화예술의 창작역량과 CT가 결합된 산업적 시너지 효과를 겨냥한 적극적인 문화예술정책의 추진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지역의 문화예술 환경은 지역민의 사회화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점차 도구화되고 기능적으로 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일상의 문화예술 환경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적 감수성을 자극하고, 공동체적 '자아'로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창작을 경험하고, 가족과 함께 참여·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를 활성화하는 정책은 미래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셋째, 사회적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자유로운 시간을 소비 또는 활용하는가는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여가 여건은 단순히 창작예술, 공연전시, 엔터테인먼트 등과 관련한 장르별 다양성만이 아니라, 성, 인종, 구역, 세대, 계층 등의 특성에 따른 집단별 다양성을 겨냥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동북아 과학기술의 거점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의 경우는 점차 강화되는 다문화 도시환경을 고려한 문화예술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도시의 문화예술은 단순히 활동의 영역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 건축, 거리, 디자인 등 도시의 생활환경 전반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을 포함한다. 이제 도시 설계 자체도 문화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도시의 문화적 환경은 주요한 지역 경쟁력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도시의 문화적 환경은 창조계층의 유인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며, 창조계층의 존재는 도시의 창조성을 증대시키는 핵심적인 척도라 할 수 있다.

지적 창의력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창조인력은 다양하고 색다른 문화적 자극을 선호하며, 그런 점에서 지역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창조도시를 지향

하는 대전광역시시는 무엇보다 '문화예술'의 정책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 창조도시의 문화정책은 창조인력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의 참여와 향유의 여건을 조성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래 과학기술도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3. 대전 문화예술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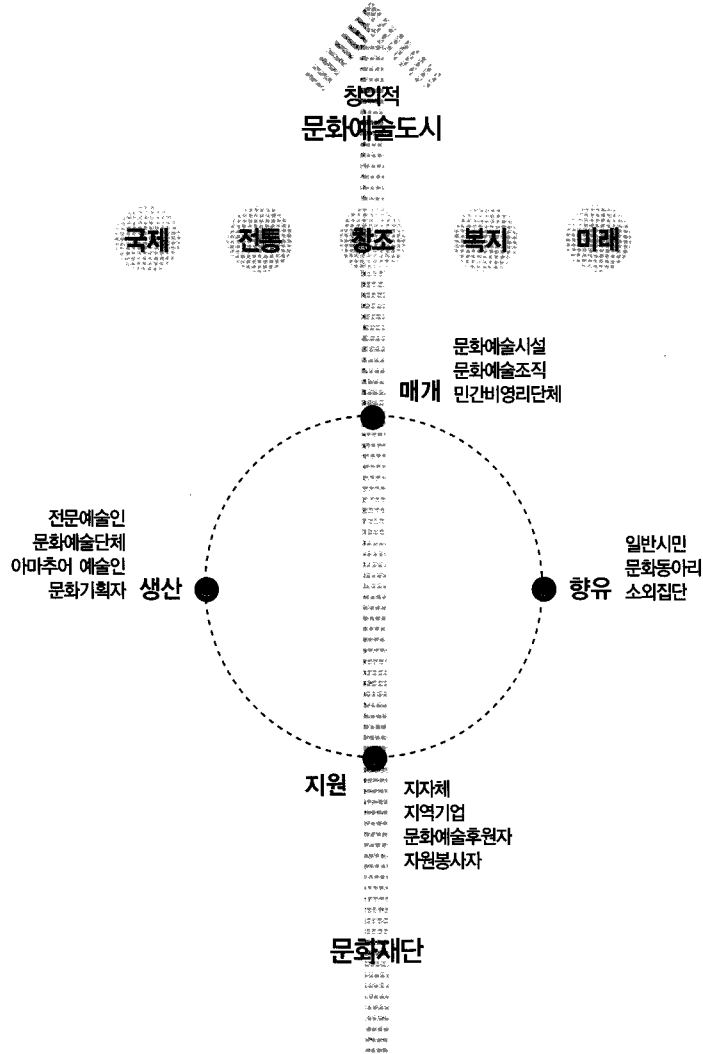
지난 1970년대 이후 대전광역시는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거점도시로서 성장해 왔다.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에 힘입은 것이지만, 인근에 국가행정의 중심도시가 조성되고, 과학비즈니스 벨트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명실공히 대전은 국가의 미래를 선도하는 두뇌인력의 집적지역으로 발전하게 된다.

대전은 대전연구단지, 정부청사, 계룡대 등 과학만이 아니라 국방과 행정 관련 고급인력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두뇌인력의 중심지역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면 필요한 더 많은 연구인력이 유입될 뿐만 아니라, 세종시에 진입하는 많은 고급인력이 대전을 중심으로 거주하게 된다. 대전은 향후 계룡시와 세종시를 아우르는 중부권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문화예술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준비해야만 한다.

첫째, 대전 문화예술의 비전은 문화예술을 단순히 소비와 향유가 아닌 체험과 참여의 대상이며, 자라나는 세대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교육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문화와 경제, 예술과 과학의 접목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의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방향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대전의 문화예술 비전은 과학과 예술의 만남의 접점 위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대전의 비전은 미래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학습과 창조의 중심도시이다. 문화예술은 이러한 대전의 미래 비전의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되어야 하며, 특히 콘텐츠 산업과 같이 대전의 우수한 CT 자원이 기초창작예술과 접목되어 미래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비전을 설정해야만 한다.

시민의 삶의 질



[그림 2] 비전도

셋째, 대전 문화예술의 비전은 글로벌 정책 환경을 반영해야만 한다. 점차 강화하는 국제화의 환경에서 점증하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은 도시의 문화적 포용성과 다양한 문화적 환경을 요구한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의 문화적 다양성은 지역의 문화예술의

내용을 풍요롭게 해주고, 문화적 포용성은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의 문화예술은 다양한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문화적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비전과 전략을 설정해야만 한다.

넷째, 대전의 문화예술 비전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유산과 특성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체의 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점차 강화되는 글로벌 문화환경에서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특성은 곧 경쟁력이며, 따라서 세계 도시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부각시키고 장소의 마케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도 문화적 유산과 지역의 특성을 도시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다섯째, 오늘날 문화예술은 어떤 특정 집단이나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시민도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집단별, 지역별 문화격차를 줄이고, 모든 시민이 '문화권'을 즐길 수 있는 여가 및 문화예술 체험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대전 문화예술의 비전은 시민의 복지 전략에 기초해서 설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문화예술은 대전이 미래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발전을 선도하는 허브도시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인력으로 간주되는 창조계층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문화예술의 향유 여건과 쾌적한 주거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도시의 공간이나 건축의 디자인조차도 창조계층에게 매력을 주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4.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1) 소규모 생활문화 중심의 기반시설 개선

그간 대전광역시시는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관련 시설을 확충해 왔으며, <표2>와 같이 전체광역대도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시설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공연시설을 포함한 전시시설, 도서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 등이 모두 확충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방향은 대규모 시설보다는 시민이 생활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는데 기여하는 소규모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공연장의 경우 2004년 35개였던 것이 공연시설의 경우 2011년 5월 현재 40개로 확충되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 소공연장 지원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전시시설도 광역시 차원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건립·운영되고 있는 큰 규모의 '선사박물관'이나 '이응로미술관' 등의 시설도 있지만, 크게 확충되고 있는 화랑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민의 생활 속의 문화예술 체험에 필요한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도서관의 경우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큰 규모의 도서관은 물론 문고를 포함한 소규모의 도서관 수가 급속하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간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작은도서관' 운동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겠지만, 부분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정책적으로 추진되었던 '책읽기운동'도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대전은 문화예술의 생활화를 지향하는 생활권 중심의 이러한 '작은 문화예술 생활공간 만들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편으로는 기초창작예술인을 위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 모든 마을단위로 도서관 등을 조성하여 사람들이 편하게 모이고, 소통함으로써 공동체의 통합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젊은 창작예술인들을 위한 활동·교류 공간의 지원은 그들이 커리어를 닦아 미래 지역의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대전의 문화예술관련시설 현황

현황 비교		2004년	2011.05 현재
공연시설	공연장	35	40
	영화관	13	12
	야외음악당	4	4
전시시설	박물관	14	21
	미술관	4	5
	화랑	28	40
도서관	도서관	13	23
	작은도서관(문고)	62	205
문화보급 전수시설	지방문화원	5	5
	국악원	1	1
	전수회관	1	3
합 계		180	359

2) 지역 문화예술의 생산활동 지원

그간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에 대한 지원이란 주로 기초창작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기초창작예술인의 활동이 문화예술의 생산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더불어 문화기획자나 스태프의 역할도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이벤트를 매개하고, 창작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문화예술에 활동에 대한 정책의 지원 방향은 주로 기초창작예술 활동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간 대전광역시시는 예산이나 시설제공을 통해서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표 2>같이 실제로 대전의 전문문화예술인의 숫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문화이벤트를 매개하고 기획하는 문화매개자나 스태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전문적인 기능이 요구되고 문화예술이벤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처우나 가치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젊은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다가도 결국 버티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일자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표 2] 대전광역시 예총 회원현황

구 분	회원수(명)		주요 활동 사항
	2004년	2011년	
예총시연합회	2,325	2,805	국악강시축제 운영, 예술인 대회, 월간 『대전예술』발행, 대전예술신인상 발굴
건축가협회	76	96	시 건축대전 및 시건축상 작품 공모전, 아름다운건축물 사진전
국악협회	315	300	전국국악경연대회 및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시민국악축전
무용협회	110	210	대전시장기 학생무용경연대회, 전국무용제, 시민무용축전, 대전무용제, 대전안무가전, 신인무용제
문인협회	320	365	정훈문학상, 한밭전국백일장, 대전문학상, 대전문학발간
미술협회	845	1,100	시 미술대전, 전국초중고 그리기대회, 청년미술제, 미술문화연구 학술논문연구집 발간
사진작가협회	210	299	대전광역시 사진대전, 백제사진대전람회, 한밭전국사진공모전, 세미누드전국사진촬영대회, 시관광사진공모전
연극협회	84	110	건국연극제 참가, 청소년연극제, 대전연극제, 시민연극축전
영화협회	120	90	청소년영화제, 청소년영화이카데미 개최
음악협회	35	250	전국합창경연대회, 한밭음악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연예협회	210	320	시민가요제, 청소년가요제, 창작 대중음악 발표회

대전이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가 상시적으로 개최되는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초창작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그간 간과되어 왔던 문화매개자의 양성 및 지원에도 힘써야 하며, 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 환경을 실현해야 한다. 문화예술의 지원인력은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필요로 하며, 이들의 활동과 체계적인 분업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만 지역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하다.

3) 시민의 문화예술의 향유 · 체험 여건 개선

전통적으로 문화예술의 영역은 소비와 향유의 영역이며, 생활의 물적 기반이 안정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문화예술에 사람들의 수요와 욕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예술은 어떤 특정 집단이나 전문가의 영역이나 단순히 수동적인 향유의 영역이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낳는 생산의 영역이자 동시에 사람들이 일상에서 즐기고 체험하는 활동의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3〉같이 그간 대전광역시도 시민이 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속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2010 생활속 예술한마당',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극장 지원' 등을 통해서 예술인과 시민의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표 3] 문화예술활동 지원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신청	금액	선정	금액	비율	신청	금액	선정	금액	비율
총 계	465	2,610,591	292	916,000	63%	512	2,806,926	296	895,000	58%
문예진흥기금	380	2,365,417	233	815,000	61%	394	2,449,406	207	750,000	53%
생활속예술 활동지원	852	45,174	59	101,000	69%	118	357,520	891	45,000	75%

특히 〈표 4〉와 같이 작은 도서관 운동은 마을단위에서 시민들이 손쉽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크게 확산시켜, 주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체의 통

합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향후 대전은 광역단위의 거대 문화예술시설보다는 이렇게 주거단위에서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작은 활동 공간들을 좀 더 확충하여 시민 중심의 참여하는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표 4]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현황

구	부서명	현재 작은도서관	등록된 작은도서관	추가조사대상·작은도서관
동구청	평생학습센터	24	14	10
서구청	문화체육과	55	15	40
유성구청	평생학습원	46	12	34
대덕구청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30	13	17
중구청	문화체육과	50	8	42
합 계		205	62	143

4)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지난 2009년 대전문화재단이 출범한 이후 대전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보다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예산과목이 좀 더 단순화되었지만 지원예산 크기는 크

[표 5] 대전문화재단 추진사업 현황

예산과목	2010 예산액			2011 예산액		
	계	국비(기금)	시비	계	국비(기금)	시비
계	3,825,086	1,240,200	2,584,886	6,535,170	1,816,185	4,718,985
출연금	693,409		693,409	4,521,985	1,077,000	3,444,985
민간위탁금	1,466,000	708,000	758,000			
민간경상보조	380,500		380,500	570,000		570,000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490,000	245,000	245,000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300,000	150,000	150,000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양성	11,400	7,200	4,200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	70,000	70,000				
문화바우처사업				316,000		316,000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위탁	353,777		353,777	388,000		388,000
대전주니어드림오케스트라	60,000	60,000		100,000	100,000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639,185	639,185	

계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비보다도 지방비의 지원이 크게 증대되었고, 사업의 종류와 내용에서도 좀 더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6).

대전문화재단의 출범 이후 '소극장 지원', '레지던스 프로그램', '창작공간 확충', '문화예술교육사업' 등 여러 사업들이 시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아직 시작단계이기는 일단 재단의 출범은 도시의 문화예술 환경과 시민의 마인드에 변화를 주고 있음이 분명하며, 그런 점에서 성공적인 출발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물론 인구나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아직도 여타 광역대도시에 비해 문화예술 지원예산이나 문예기금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도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나 DB의 구축이 취약하며, 관련인프라의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하다. 그런 점에서 미래 대전의 문화예술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시정에서 문화예술관련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이 향유와 소비의 영역이라는 인식은 그간 문화예술 관련 예산에 대해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시의회의 심의에서조차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문화예술은 즉각적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분야는 아니지만, 지역의 경제와 긴밀히 연결되고, 도시의 재화에 기여하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예기금의 확보를 위해 지자체 이외에 토착기업이나 후원자의 기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금원의 다변화는 문화예술재단의 한편으로 시민참여의 분위기를 확산하고, 재단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는 다른 광역대도시에 비해 대전의 기금확보가 크게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특히 그러하다.

셋째, 기초조사와 BD구축·운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BD는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확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의 시설이나 인력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도시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는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문화예술관련 통계는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예술 관련사업의 지원 및 관리 인력에 대한 전문화가 필요하다. 문화예술 재단의 출범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민간 중심의 사업지원이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전문가’란 흔히 오해되는 바와 달리 창작예술인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기획자’와 같은 기획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의미한다.

[표 6] 예산항목에 따른 문화예술 지원사업

출연금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문화재단 운영(1010, 2011)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2010)	찾아가는 문화활동(1010, 2011)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2011)	레지던스 프로그램(2010)	등산로주변 찾아가는 공연(1010, 2011)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2011)	연극전용 소극장 지원(2010)	국악단체 창작활동 지원(1010, 2011)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2011)	문예진흥기금(2010)	지역오페라단 공연활동지원(2011)
레지던스 프로그램(2011)		2010 대전생활속 예술한마당(2010)
연극전용 소극장 지원(2011)		대전국제기타페스티벌(1010, 2011)
문예진흥기금(2011)		
건우직녀 축제(2011)		
예술화관 임대지원사업(2011)		
대중문화예술 육성지원(2011)		

5. 결론

대전은 향후 인근에 세종시가 조성되고, 과학기술비즈니스 벨트가 입지하게 되면 명실공히 국가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부권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도약하게 된다. 대전이 과학기술문화도시로서 미래의 도시전략을 설정하고, 도시의 창조성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대전이 지식기반정보사회의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전의 미래 문화 발전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 및 구체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창조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공간과 고품격의 문화적 향수가 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도시의 산업을 창조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의 문화정책은 창조인력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적 창의력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창조인력은 무엇보다도 다양하고 색다른 문화적 자극을 선호하며, 지역의 문화예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예술적 감수성을 자극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직접 창작·경험해 볼 수 있는 문화예술의 토양을 가꿀 필요가 있다. 지역의 문화예술은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와 동호회 모임과 활동에 의해서만 풍요로워 질 수 있고, 이 풍요로운 문화예술 환경은 지역의 경쟁력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